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워싱턴우주발사장에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연방 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싱턴우주발사장에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연방 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력사의 검증속에서 다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김정은원수님과 뿌썬대통령의 두터운 친분과 각별한 우의속에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더 승화발전되고있다.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의 새로운 확대발전을 위하여 로씨야연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맞이하게 될 워싱턴우주발사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열차는 현지시간으로 13시 워싱턴우주발사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차에서 내리시자 로씨야연방무력 특혜공군명예위병대가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히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알렉산드르 쵸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을 비롯한 영접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연방 대통령의 접견을 위하여 상봉장소로 향하시였다.

최신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병철,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들,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오수용,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수행간부들과 수행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조로수뇌분들이 상봉하시게 될 운반로켓조립 및 시험종합체건물앞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연방 국기가 나뭇기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연방 대통령이 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뿌썬대통령은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조관계발전에서 뜻깊고 중대한 시기에 로씨야연방을 또다시 찾아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이 국가

사업전반을 령도하는 바쁜 속에서도 따듯이 초청해주고 맞이해주시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면서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썬 로씨야연방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우주발사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유리 보리쵸브 로씨야국영회사 《로스코스모스》 총사장과 니콜라이 네스체츠크 우주지상하부구조운영센터 소장이 안내

해드리였다. 워싱턴우주발사장은 각이한 용도의 우주기구 및 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장성에 기여하고있으며 아무르주와 원동지역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로씨야의 종합적인 우주발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과 함께 운반로켓조립 및 시험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쏘유즈-2》,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로켓들의 구체적인 기술적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또한 운반로켓 《쏘유즈-2》발사종합체와 운반로켓 《안가라》발사종합체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및 건설실태와 로씨야가 우주산업분야에서 창조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청취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의 전략적인 우주개발구상에 따라 워싱턴우주발사장이 훌륭히 일떠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주에로의 길을 개척한 강대한 로씨야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뿌썬대통령이 중요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성의있는 참관을 직접 조직하고 함께 동행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뿌썬대통령은 자기의 전용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워싱턴우주발사장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첫 우주점복자들 낚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것이다. 김정은 2023. 9. 13》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본사기자

